

번역 연구를 위한 디지털 인문학의 이해: 개념, 연구 동향, 함의*

최희경(한국외국어대학교)

1. 서론

최근 국내 번역 연구에서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용어가 간간히 등장하고 있다. 간단한 정의에 따르면 디지털 인문학은 ‘컴퓨터 분석법을 인문학 자료에 적용하는 학문 분야’를 일컫는다(Drucker, 2021, p. 1). 평소 디지털 데이터 분석에 관심 있는 연구자라면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용어나 그 개념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일이지만,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인문학 범주의 통역번역학 분류에서 ‘디지털 인문학’을 제목, 키워드 및 초록으로 검색한 결과, 2025년 1월 15일 현재 단 1편만이 확인될 정도로 번역학계에서는 친숙하지 않은 주제어라고 할 수 있다. 인문학 범주로 범위를 넓혀 ‘디지털 인문학’, ‘번역’을 순차적으로 검색했을 때는 30편의 논문이 확인되는데, 이는 디지털 인문학을 표방하거나 디지털 인문학으로 명명할 수 있는 번역 관련 연구가 주로 번역학 이외의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처럼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국내 번역학 연구자들의 전반적인 인식은 상대적

* 이 연구는 2025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연구지원사업과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NRF-2023S1A5A8082393). 논평해주신 심사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

으로 미약한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디지털 인문학이 본격적으로 시도된 지는 이미 10년여가 훌쩍 지났고(류인태, 2020, p. 366), 정부 차원에서도 교육부가 2021년 ‘디지털 인문학 2.0’ 계획을 발표하는 등(교육부, 2021, pp. 21-22) 인문학 중심의 디지털 융복합 연구는 사회적, 국가적 지원하에 추진된 지 오래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고 번역학 연구 영역과 방법론을 다양화, 활성화하기 위해 번역학계 내부로부터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제고하고 향후 디지털 인문학적 번역학의 방향성을 가늠해 보는 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술한 대로 KCI 통역번역학 분류에서 디지털 인문학을 표방한 논문이 거의 없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지만, 사실 번역학 연구 중 코퍼스 분석, 텍스트 마이닝 등 디지털 데이터(또는 데이터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분석 기법을 활용한 연구로서 서두에 소개한 디지털 인문학의 단순한 정의에 부합하는 연구는 추가로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이런 연구의 제목, 키워드, 초록에서 번역학과 디지털 인문학이 접점을 이룬 학제적 연구라는 인식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번역학 연구 수행에 저해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번역학계 내에서도 디지털 인문학에 부합하는 성격의 연구를 디지털 인문학으로 표방하고 디지털 데이터와 도구를 적극 활용하여 연구를 다변화하는 쪽이 번역학의 저변을 공고히 하고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국내 번역학 내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미약한 인식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우선 그간 논의된 디지털 인문학의 개념과 정의를 충실히 고찰한다. 이는 디지털 인문학을 그 자체로서 학문의 분과로서 볼 것인지, 각 학문 분과에 속하는 연구 영역이나 방법으로 볼 것인지가 여전히 논쟁의 대상(정은경, 2021, p. 394)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런 다음 국내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 동향과 번역학 내 디지털 인문학적 접근 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 번역학 연구에서 디지털 인문학을 어떻게 적용,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관한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한다.

2. 디지털 인문학의 이해

2.1 디지털 인문학의 정의와 개념

‘디지털 인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다. 디지털 인문학이 정의 내리기 힘들다는 점은 국내외 연구자들이 이미 언급한 바 있다(정은경, 2021, p. 394; Bowker, 2021, p. 37; Gu, 2024, p. 154; Klein & Gold, 2016, p. ix). 디지털 인문학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디지털 인문학이 용어로 정립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구 사회에서는 로베르토 부사(Roberto Busa, 1913-2011) 신부의 중세 라틴어 텍스트 전자 색인 작업을 디지털 인문학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Hockey, 2004, p. 4). 이를 계기로 미국과 유럽 인문학자들이 컴퓨터 활용 연구를 모색하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인문학 전산화(humanities computing), 또는 전산 인문학(computational humanities)이라는 이름하에 주로 텍스트 및 언어 자료의 색인화와 통계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후 정보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시각화(visualization) 등으로 연구 범위가 확장되었다(김현, 2013, p. 12).

인문학 디지털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게 되면서 연구자들은 점차 기존의 용어를 대신해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고(김현 등, 2016, pp. 19-20), 2004년 블랙웰 출판사(Blackwell Publishing)의 『디지털 인문학 개론(A Companion to Digital Humanities)』(Schreibman et al., 2004) 출판은 인문학 전산화의 확장된 개념으로서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용어가 자리 잡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김현 등, 2016, pp. 19-20).

그런데 정작 디지털 인문학의 정체성은 디지털 인문학 종사자나 관여자들에게도 혼란스러웠던 듯하다. 성장과 탈바꿈을 지속하는 신생 학문 분과이자 학제적 분야라는 특성상 그 경계가 확장되거나 중심축이 이동하는 등의 변화와 다양성의 확대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Bowker, 2021, p. 37; Klein & Gold, 2016, p. ix).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이른바 ‘빅텐트(Big Tent)’ 디지털 인문학 접근법이 널리 수용되면서 디지털 인문학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

표 1

디지털 인문학 정의 코퍼스의 상위 30개 고빈도 핵심어

| 순위 | 핵심어 | 빈도 | 순위 | 핵심어 | 빈도 |
|----|-------------|-------|----|-------------|----|
| 1 | humanities | 1,033 | 16 | work | 85 |
| 2 | technology | 337 | 17 | media | 79 |
| 3 | research | 249 | 18 | application | 73 |
| 4 | tool | 245 | 19 | culture | 67 |
| 5 | dh | 208 | 20 | knowledge | 66 |
| 6 | method | 148 | 21 | computing | 64 |
| 7 | way | 142 | 22 | text | 62 |
| 8 | study | 133 | 23 | information | 60 |
| 9 | question | 123 | 24 | teaching | 55 |
| 10 | field | 120 | 25 | datum | 55 |
| 11 | use | 112 | 26 | definition | 54 |
| 12 | discipline | 102 | 27 | methodology | 54 |
| 13 | computer | 98 | 28 | term | 53 |
| 14 | scholarship | 93 | 29 | inquiry | 50 |
| 15 | practice | 86 | 30 | scholar | 49 |

위의 고빈도 핵심어들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인문학이 인문학 연구와 컴퓨터 기반 기술을 융합하는 학제 간 연구 분야임을 보여준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디지털 인문학의 핵심 개념이다. 가장 빈도가 높은 ‘humanities’를 비롯해 ‘technology’, ‘computer’, ‘computing’ 등의 단어는 디지털 인문학이 컴퓨터 기술을 활용해 전통적인 인문학을 연구하는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research’, ‘method’, ‘methodology’, ‘study’ 등의 단어는 디지털 인문학이 단순히 디지털 도구의 활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탐구하는 학문임을 시사한다. 둘째, 디지털 도구와 적용에 관한 내용이다. ‘tool’, ‘use’, ‘application’ 등의 높은 빈도는 디지털 인문학이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학문이라는 점을, ‘text’, ‘information’, ‘datum’ 등의 단어는 그 적용 대상이 인문학 텍스트와 정보, 데이터에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디

지털 인문학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다. ‘question’, ‘field’, ‘discipline’, ‘definition’ 등의 단어는 디지털 인문학 종사자들이 끊임없이 학문적 정체성과 연구 범위를 탐색하고 있음을, ‘culture’, ‘knowledge’ 등의 단어는 디지털 인문학이 인문학적 지식의 생산과 전파를 연구하는 학문임을 나타낸다. 또한 ‘teaching’, ‘scholarship’은 디지털 인문학이 교육 및 학술 연구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비교적 최근 보우커(Bowker, 2021, p. 37)는 이처럼 동적으로 진화 중인 디지털 인문학의 개념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시도한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정의를 검토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요소를 도출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 디지털 기술과 역사, 철학, 언어학, 문학, 문화 연구 등 인문학 제 분야의 교차점에서 발생한다.
- 전통적인 인문학 방법론과 컴퓨터 분석 도구(하이퍼텍스트/미디어, 정보 추출, 데이터/텍스트 마이닝, 데이터 시각화, 통계, 디지털 지도 제작) 및 디지털 출판을 결합한다.
- 협력적이고 초학제적(transdisciplinary)이며 컴퓨터 분석적인 연구이다.
- 디지털화된 자료뿐만 아니라 디지털 원천 자료(digitally created materials)도 연구 대상으로 한다.
- 기술을 활용하여 인문학 연구를 수행하는 동시에, 기술 자체를 인문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디지털과 인문학 간 쌍방향 관계를 지향한다.
- 전통적인 학문적 실천을 재구성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중요시한다.

지금까지 기술한 논의에서 디지털 인문학은 단순히 디지털 도구를 적용하는 것을 넘어, 기술과 인문학 간의 상호작용을 탐색하고, 전통적인 학문적 접근 방식을 혁신하며, 협력적이고 데이터 중심적인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학제적 연구 분야라고 요약할 수 있다. 나아가 보우커가 언급한 ‘초학제적’ 분야의 특성은 디지털 인문학이 기존 학문 간(interdisciplinary) 협력을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통 인문학과 컴퓨터 과학, 데이터 과학 등의 요소를 융합하여 학문 간 경계를 초월해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방법론과 지식)을

창출하는 분야임을 시사한다. 디지털 인문학이 신생 학문 분과인지 또는 더 하위의 연구 영역이나 방법인지에 관한 논쟁(정은경, 2021, p. 394)은 명확히 경계를 짓기 어려운 디지털 인문학의 초학제적 특성에 기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²⁾

한편 디지털 인문학의 국내 연구 동향을 다룬 본고의 목적상 국내에서 디지털 인문학 개념이 어떻게 태동하여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인문학계에서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용어 자체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사용되기 시작했다. 당시 이 용어는 컴퓨터의 대중화와 인터넷의 태동 이후 도래한 ‘정보화’ 사회에 대한 인문학의 변화와 대응을 요구하는 관점에서 사용되었다(이재연, 2018, p. 160). 일례로 권영민(2001, pp. 10-11)은 인터넷을 통해 국제적 정보 교류,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정보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인문학이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디지털 인문학으로 새로이 정립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인문학이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로 대변되기 시작하면서, 그 위기 극복을 위해 전통적 인문학이 정보화 시대와 상생하는 전산인문학 등의 ‘열린’ 인문학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조지형, 2000). 당시의 디지털 인문학은 지금에 비해 사회적 조류에 대응하는 거대한 관점의 변화를 표상하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인다.

디지털 인문학의 본연적 속성이 필연적으로 도전과 극복을 요구한다는 점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새로운 기술과 혁신의 물결에 직면해 있는 인문학자들(좀 더 가깝게는 번역학자들)의 현실을 생각하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그러나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디지털 인문학의 개념은 보다 수용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김현(2013, p. 12)은 디지털 인문학의 가능성에 주목할 것을 제안하며, 디지털 인문학을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하는 인문학 연구와 교육, 그리고 이와 관계된 창조적인 저작 활동을 일컫는 말”로 정의한다. 이어 디지털 인문학은 주제적으로는 전통적 인문학을 계승하고 연구 방법 면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며,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기술과 매체 환

2) 다만 본고에서는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는 연구 목적상 학문 분과나 하위의 연구 영역 또는 방법의 시각 중 어느 한쪽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경에서 창조적이고 혁신적으로 인문학 활동을 전개하고 인문 지식을 생산하는 노력이라고 부연한다. 이 정의는 디지털 인문학 개념에 활동의 영역과 주제, 연구 방법,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거대한 변화에 대응해 막연히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초창기에 비해 진일보한 관점을 보인다.

2010년대 초중반에는 빅데이터 시대에 부응하는 인문학의 새로운 역할이 탐색된다. 육현승과 조병철(2013, pp. 142-143)은 인문학이 다른 학문과의 공조를 통해 단점을 보완하면서 자체 역량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시대에 맞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보았다. 또한 디지털 인문학자의 역할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창조적 가치와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디지털 큐레이터, 신뢰성과 진정성을 갖춘 데이터를 판별하는 디지털 비평가, 감시와 속박에 저항하고 자율과 공존을 진작시키는 선도자, 디지털 발전에 소외된 이들을 교육하는 디지털 계몽주의자로 제시한다. 한동현(2013)은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인문학에 통합하여 인문학적 지식을 풍성하게 할 것을 주문한다. 인문학의 관점에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도입할지, 그 결과물을 대중과 어떻게 소통할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일환과 이도길(2016, p. 374)은 디지털 인문학은 지금까지 인문학이 미처 다루지 못한 주제에 대해 새로운 기술과 방법론을 적용하여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초점이 있으며, 특히 빅데이터와 시각화 등을 이용한 연구는 기존 인문학의 기반 위에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디지털 인문학은 기존 인문학의 대체가 아니라 확장이며, 같은 인문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모두 인문학이 중심이 된 시각을 보여준다.

한편 그 시기에 국내에서 발전한 디지털 인문학의 독특한 맥락을 짚어낸 논의도 있다. 김민형과 임영상(2016)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 시대 인문학의 새로운 방향과 한류 확산이 국내 학계에 복합적으로 작용해, 인문학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과 성과가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콘텐츠’ 연구라는 새로운 분야가 개척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김일환과 이도길(2016, pp. 370-372)은 디지털 인문학보다 ‘(문화) 콘텐츠’가 궁극적인 지향점인 듯 강조하며 산업화 연계 방안을 강조하는 양상이 바람직한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문화 콘텐츠를 디지털 인문학의 영역을 활용하는 한 가지 시도로 해석한다. 김용수(2017)도 같은 시각에서 콘텐츠 중심의 디지털 인문학을 상

업적 맥락의 접근이라고 비판하며 ‘개방’과 ‘공유’의 정신에 충실할 것을 역설한다.

이후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담론이 확산하면서 국내 디지털 인문학의 개념은 또 한 차례 진화하는데, 송인재(2017)는 디지털 인문학이 연구 대상, 인프라, 서술 방법 모두의 혁신을 요구하며, 플랫폼 구축, 시스템 운용, 텍스트 이미지 분석, 시각화 결과 구현 등이 연구의 새로운 과정으로 등장했다고 진단한다. 박광현(2020, p. 150)은 디지털 인문학이 4차 산업, 융합, 인공지능, 기계학습 등과 같은 화두에 대한 인문학의 대응이라고 밝히며, 코퍼스, 자연어처리, 기계학습 등 인접 학문의 기술적 역할을 도구적 관점이 아닌 인문학 연구 방법론의 체계적 변화와 재구조화의 동인으로서 논의한다. 이어 4차 산업 시대의 맥락에서 수많은 프로젝트가 인문학과 기술 학문 분야의 융합 형태로 진행되어 디지털 인문학이 궁극적으로 인문학 연구의 일반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 전망한다. 그의 이러한 시각은 디지털 인문학을 인문학의 확장으로 본 2010년대 초중반의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초학제적 학문으로 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디지털 인문학이 초학제적이라는 개념적 이해는 앞서 보우커(2021, p. 37)의 정의에서도 언급된 바 있지만, 한호현과 서재현(2023)에서 더욱 강조된다. 그들에 따르면 역사상 문자와 인쇄 기술 출현으로 인한 인문학의 거대한 변화를 돌이켜볼 때 디지털의 출현 이후 등장한 디지털 인문학은 그 자체로 인문학이자 새로운 학문이다(p. 9). 또한 디지털 인문학은 디지털학과 인문학의 융합 그 자체를 중심에 두고 있기에, 어느 한쪽에서 다가가거나 양쪽에서 서로에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인문학에서 출발하여 인문학과 디지털학으로 전개해 나가는 연구다(p. 71). 이와 같은 시각은 인문학자들이 디지털 기술과 환경을 더 이상 외생적, 이질적 요소가 아닌 인간의 사유를 끌어올리는 새로운 틀로서 받아들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반으로 국내 디지털 인문학 개념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디지털 인문학은 정보화, 디지털화 사회에 대한 인문학의 변화와 대응 개념으로 등장하여, 빅데이터 및 문화 산업의 영향을 받아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창조적인 지식을 생산하고 인문학을 확장하는 연구 방법으로 인식되었다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기계학습 등의 확산

과 함께 새로운 초학제적 연구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으로 진화해 왔다. 시대가 요구하는 디지털 인문학의 개념과 정의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논의는 그 자체가 인문학적 논의라고 볼 수 있으며, 번역학자를 포함한 인문학 연구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디지털 인문학의 개념과 방향을 주체적으로 탐색할 사명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2.2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 분야 및 활동

2024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의 편저 『디지털 시대, 인문학의 미래를 말하다』에서는 인문학에 대한 새로운 조감도를 제시한다는 발간 의도에 따라 ‘진단과 전망’, ‘새로운 개념과 방법’, ‘인문학 논의의 다양성’ 등 세 개의 대주제하에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이후 디지털 인문학을 종합적으로 조망했다. 이 책에서 이석재(2024, pp. 23-25)는 한국학 또는 한국 인문학이 지역학을 넘어 보다 확장적인 ‘신한국인문학’의 가치를 내걸 것을 제안하며, 그 방향성의 원리를 ‘보편성’, ‘고유성’, ‘포용성’, ‘연결성’으로 설명한다. 인문학은 복잡다단한 인간 삶을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하면서도 각자의 시점에서는 고유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 가능해 다양성을 증진하며, 참여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거시적 시각은 인문학 연구자들이 각자의 고유하고 편협한 영역에 갇히기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틀을 조형해 나가도록 독려한다. 편저에 소개된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주제는 역사, 종교, 언어, 문학, 멀티미디어, 문화, 게임, 지리, 고고학, 고전, 미술 등 매우 다양한데, 이는 앞서 제시된 네 가지 원리가 현시대 디지털 인문학의 속성을 잘 반영한다는 점을 방증한다.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 분야를 연구 대상과 방법 중심으로 크게 분류해 본다면 대체로 텍스트 분석, 이미지 분석, 네트워크 분석, 공간 분석의 네 범주로 나눌 수 있다(이은수, 2024, pp. 178-180). 텍스트 분석은 프랑코 모레티(Franco Moretti) 교수가 주창한 ‘멀리서 읽기(distant reading)’에서 시작되었다. 이 기법은 원래 텍스트에 대한 거시적 정량 분석을 통해 텍스트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추출하는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기술 발전으로 ‘가까이 읽기(close reading)’의 제약도 일부 극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지 분석은 인문학의 주요 연구 대상으로서의 이미지 정보 전반에 대한 분석으로, 기존에 불가능했던 방대한 정보 처리와 분석을 수행하며, 멀티모달 텍스트의 증가와 미디어의 변화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네트워크 분석은 인문학에서 상호 관계망을 생성할 수 있는 정보에 적용되며, 단어 간, 텍스트 간, 또는 인물 간 영향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공간 분석은 공간 지리 정보를 활용한 분석 일체를 가리키는데, 예를 들어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공간, 장소, 건물 등을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활용해 분석할 수 있다. 전술한 네 범주 외에도 도서, 유물 등의 데이터에 대한 디지털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아카이브 구축 등의 데이터 디지털화 작업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디지털 인문학의 거시적 조망을 위한 한 방편이 되고 있지만, 빅데이터 접근법이나 확장된 영역으로서의 속성(Klein & Gold, 2016, p. ix)을 고려할 때 디지털 인문학의 실천 양상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분류법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관점을 바꾸어 디지털 인문학이 디지털 데이터(디지털 원천 데이터 또는 디지털화한 데이터) 주도로 수행되는 학문임에 착안하여 드러커(Drucker, 2021, pp. 1-4)가 제시한 틀을 기반으로 이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는 디지털 인문학을 주요 요소 및 활동으로 설명한다(<표 2>). 일견 일반적인 정보시스템 개발 요소 및 활동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핵심은 데이터다. 디지털 인문학에서는 고문서, 지도, 육필본, 역사적 문서, 희귀판본 등 미처 디지털화하지 않은 아날로그 데이터의 디지털화와 원래 디지털 매체로 생성된 디지털 원천 데이터의 구조화와 같이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하고 구조화하며 표현할지가 중요하다. 번역학의 맥락에서 본다면 종이로 된 고문서 번역 자료, 번역가와 관련된 모든 온오프라인 자료, 전자적으로 출간된 번역서, 소셜미디어상의 번역 담론, 온라인 서점에 게시된 독자 후기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종류와 양의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데이터가 디지털 인문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표 2
디지털 인문학의 요소와 활동

| 디지털 인문학 | |
|--|---|
| 요소 | 활동 |
| 자료(디지털 데이터) 처리(컴퓨터 분석 방법 및 도구) 표현(시각화) | 디지털 자산 구축 데이터 전산화 및 모델링 데이터 분석 처리 데이터 구조화 및 시각화 디지털 자산 유지보수 |

본고는 번역 연구를 위한 디지털 인문학의 이해와 연구 동향 고찰을 목적으로 하므로 번역학 내에서 디지털 인문학적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번역학 내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데(Bowker, 2021; Dolmaya, 2024; Gu, 2024; St André, 2018; Tanasescu, 2021; Wakabayashi, 2019), 그중 구(Gu, 2024), 보우커(2021), 돌마야(Dolmaya, 2024)의 연구를 주목해 볼 수 있다.

먼저 구(2024)는 번역학에서 디지털 인문학적 접근의 공식적 효시를 모나 베이커(Mona Baker)가 1993년 발표한 “코퍼스 언어학과 번역 연구: 함의와 적용(Corpus linguistics and translation studies: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으로 보고, 코퍼스 언어학이야말로 통번역 연구에서 가장 뚜렷하게 활용된 디지털 인문학적 접근법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그는 지난 30여 년간 전개된 코퍼스 언어학 기반의 번역 연구를 번역 보편소, 번역투, 번역 문체, 비판적 담화 분석 등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이 연구는 디지털 인문학적 번역 연구의 중심 흐름을 개관하고 있지만, 논의가 코퍼스 연구에 국한되어 다양한 연구 영역 및 방법과 확장 가능성을 논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보우커(2021, pp. 38-42)는 디지털 인문학 범주에 속하는 번역학 연구를 네 개의 구체적인 분야, 즉 번역 기술, 빅데이터, 디지털 공간, 데이터 시각화로 분류하여 소개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보우커는 디지털 인문학의 다학제적 성격과 방법론적 다양성으로 인해 특정 연구가 하나 이상의 분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한다(p. 38). 예를 들어 빅데이터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의 데이터 시각화는 서로 배타적인 영역이 아

닐 것이다. <표 3>을 보면 디지털 인문학으로 명명되지 않았더라도 그 성격을 지닌 연구가 이미 번역학 내에서 광범위하게 실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디지털 인문학의 방향성 원리(이석재, 2024, pp. 23-25)에 비추어 본다면, 번역학은 제 나름의 고유성에 맞는 디지털 인문학 연구 지형을 형성하면서도 인간의 삶과 밀접한 주제를 다루는 보편성의 원리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디지털 인문학적 번역 연구 분야(Bowker, 2021, pp. 38-42)

| 구분 | 주요 내용 |
|---------|---|
| 번역 기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컴퓨터보조번역(CAT)과 기계번역(MT) 등 번역 기술이 번역 과정과 결과물에 미치는 영향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논의 번역 기술과 관련한 인간적 요소(human issues)에 대한 연구(현장 연구, 사용자 경험 분석, 윤리, 문학번역 적용 등) |
| 빅데이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대규모 데이터 세트 분석 및 체계적 정보 추출 코퍼스 언어학, 텍스트 마이닝, 계량 서지학(bibliometrics), 프로소포그래피(prosopography)³⁾ 등을 통해 연구의 정량적 분석 강화 방대한 번역학 데이터를 체계적이고 확장적 방식으로 분석 |
| 디지털 공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화된 자료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된 자료도 연구 대상에 포함 소셜미디어와 번역 연구, 전자문학과 번역 연구 등 디지털 양식이 번역 과정과 결과물에 미치는 영향 연구 |
| 데이터 시각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시각화와 네트워크 분석이 번역 연구를 심화 번역가의 역할, 번역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 번역 네트워크의 역동성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 |

한편 돌마야(2024, pp. 1-2)는 더욱 적극적으로 번역학을 위한 디지털 연구 방법을 개관한다. 그는 디지털 인문학이 “협업적이고 초학제적인 컴퓨터

3) 개별 인물 연구를 넘어 특정 집단의 특성과 관계, 활동의 패턴을 찾아내는 연구를 말한다. 예를 들어 특정 시기나 지역 번역가 집단의 공통적 특징 등을 연구한다 (Bowker, 2021, p. 40).

중심 연구, 교육, 출판 활동”이라는 버딕 등(Burdick et al., 2012, p. 122)의 정의를 인용하며, 디지털 인문학이 번역학과는 비교적 최근해야 명시적으로 연계되기 시작했다고 논평한다. 하지만 번역학에서 디지털 인문학적 접근법을 사용한 오랜 전통과 역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래의 적용 분야를 제시한다.

- 코퍼스 기반 번역 연구
- 네트워크 그래프 분석을 통한 번역 연구 시각화
-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원천(born-digital) 자료 연구
- 온라인 번역 데이터베이스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이는 보우커(2021, pp. 38-42)가 제시한 <표 3>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더 최근 연구임에도 번역 기술 관련 분야를 언급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이는 돌아야가 CAT나 MT 관련 연구에 대해 디지털 인문학의 관점에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소개한 이은수(2024, pp. 178-180)의 디지털 인문학 연구 분야 네 범주를 번역학 맥락의 세 연구와 비교해 보면, 이미지 분석과 공간 분석⁴⁾은 번역학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미개척된 분야임을 알 수 있다.

3. 국내 디지털 인문학 연구 동향 및 번역 연구

3.1 국내 디지털 인문학 연구 동향을 다룬 선행연구

국내에서 디지털 인문학이 주목받기 시작한 2010년대 이후 국내외 디지

4) 돌아야(2024, p. 2)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번역 작품 내용의 지리적 분석이나 번역 출판사의 네트워크 시각화 연구 등을 향후 번역학에서 가능한 연구로 제시하고 자신의 책 11장에서 별도로 다룬다. 그 외에도 번역학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디지털 분석으로 지리정보 추출(geoparsing)(5장),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6장), 자동 이미지 분석(automated image analysis)(7장)에 관해 소개하고 있다.

텔 인문학 연구 동향에 관한 논문은 다수 발표되었다(김바로 2014; 김일환과 이도길, 2016; 박경우, 2022; 정유경, 2020; 정은경, 2021; 홍정옥과 김기덕, 2014). 이들은 주로 해외 디지털 인문학의 현황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는 선도적으로 수행된 해외 사례를 통해 디지털 인문학의 개념, 연구 분야 및 실천 방식을 탐구함으로써, 이에 비추어 국내 연구를 돌아보고 복돋우기 위함으로 보인다. 국내 연구 동향을 다룬 홍정옥과 김기덕(2014), 김일환과 이도길(2016), 정유경(2020), 박경우(2022)에서 공통으로 드러난 점은 국내에서 디지털 인문학 연구가 본격화한 지 10년여가 흘렀음에도 여전히 인문학 연구자들에게 디지털 기술과 기법은 이질적이고 외래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 인문학적 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문학 연구자가 디지털 인문학을 외부에서 조망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 데이터를 생성하고 소비하는 주체로서 디지털 인문학 자체를 출발점으로 삼아 디지털 데이터를 어떻게 탐구하고 해석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지점이다(한호현과 서재현, 2023, p. 71).

이 네 편의 선행연구 중 김일환과 이도길(2016)의 경우 연구 사례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했으나, 홍정옥과 김기덕(2014), 정유경(2020), 박경우(2022)는 그 자체로 계량 서지학적 분석(토픽 모델링, 네트워크 분석 등)을 수행하여 디지털 인문학적 연구 방법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본고와 유사하다. 그러나 본고는 인문학, 비인문학 분야를 아울러 데이터를 수집한 선행연구와 달리 인문학 학술지에서 디지털 인문학을 표방한 논문만을 수집함으로써 인문학자들의 관심사와 연구 수행 현황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를 통해 번역학에의 함의를 탐색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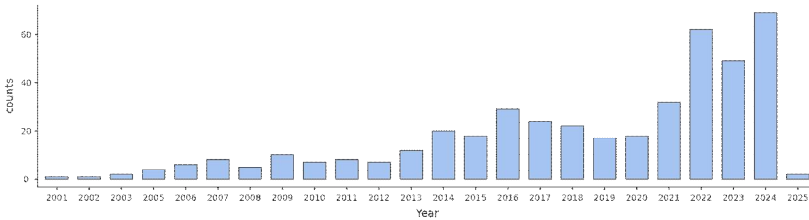
3.2 국내 디지털 인문학, 무엇을 연구했는가

3.2.1 디지털 인문학의 양적 추세

본고에서는 국내 인문학 분야에서 디지털 인문학을 표방한 연구의 주제 및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KCI 인문학 분류에서 키워드 ‘디지털 인문학(또는 digital humanities)’으로 검색된 논문 433편(2001~2025)의 초록으

로 코퍼스(81,205어절)를 만든 후⁵⁾ 텍스트 마이닝 분석 방법 및 도구를 활용
해 분석하였다(<표 4> 참고). <그림 2>는 수집된 데이터의 양적 추이를 그
래프로 표현한 것이다.⁶⁾

그림 2
디지털 인문학 논문 433편의 연도별 추이



<그림 2>에서 나타나는 국내 인문학 내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양적 추
이에서는 가파른 성장을 보이는 몇몇 지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들의 사
회적, 학술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창기 몇 년간 매년 1~2편 정도
발표되던 논문은 2013년 10편 안팎에 이르기까지 완만히 증가하다 이후 증
가 폭이 커지기 시작했는데,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사회적 현상은 바로
빅데이터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직전 해인 2012년은 ‘빅데이터 시대의
원년’으로 불리며 디지털 데이터의 가치에 대해 전 사회적 인식이 크게 제
고된 시기로(채승병 등, 2012, p. 1), 빅데이터의 활용은 인문학의 지평을 새
로운 차원으로 확대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김일환과 이도길, 2016). 2014

5) KCI에서 ‘디지털 인문학’을 검색하면 인문학(433편), 복합학(86편), 예술체육(75
편), 사회과학(61편), 공학(15편), 의약학(2편), 자연과학(2편)의 논문이 출력된다
(2025년 1월 15일 기준)(한국학술지인용색인, n.d.). 본고에서는 인문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디지털 인문학 연구를 조망하기 위해 범위를 인문학 분류 논문 433편으
로 한정한다. 대상 논문의 초록이 대부분 국문으로 되어 있어 모든 분석은 기본적
으로 한국어 기반으로 진행한다. 영어, 프랑스어 등 소수의 외국어 초록은 정확성
이 높다고 평가되는 기계번역 도구인 딥엘(DeepL)(Kamaluddin et al., 2024)로 번역
해 연구자의 감수를 거쳐 데이터에 편입하였다.

6) 웹 브라우저 기반의 무료 오픈소스 통계 소프트웨어인 자모비 클라우드(Jamovi
Cloud)를 사용해 출력했다(The jamovi project, 2024).

년에 이르러 디지털 인문학 논문은 처음으로 20편을 넘어서게 되는데, 이재연(2018, pp. 172-173)은 이 시기에 디지털 인문학의 기본 토양을 다지는 데 기여한 일련의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우선 2014년 한국연구재단은 ‘디지털 인문학 시각화 콘텐츠 개발’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2015~2016년에는 디지털 인문학의 개념 및 실행과 관련한 입문서들이 번역서로 또는 편서로 출판되어 디지털 인문학의 체계적 이론화에 기여한 바 있다.

디지털 인문학 논문은 2016년을 기점으로 또 한 차례 크게 증가했는데, 이 시기는 알파고로 대변된 딥러닝, 머신러닝 등의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해다. 또한 빅데이터에 이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이 키워드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4차 산업혁명 담론의 확산으로 디지털 인문학의 의미가 다변화하고 진화하던 시기로 볼 수 있다(송인재, 2017). 최근 몇 년간은 2021년 32편을 기점으로 2022년 62편, 2024년 69편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연구량이 대폭 증가하는데, 이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김지선과 유인태, 2022, pp. 395-398), 생성형 AI의 출현 등으로 인문학 전반에 지각 변동이 생긴 시기이다. 이 시기에 이르러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성찰은 단순히 기존 인문학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수동적 차원이 아닌 인문학 내부의 유기적 성장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인문학 내부에서 주체적으로 어떤 인문학 데이터를 어떻게 편찬하고 해석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원점에서 고민해야 할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유인태, 2023; 한호현과 서재현, 2023).

3.2.2. 디지털 인문학 논문 초록 분석

국내 디지털 인문학 논문에서 논의된 주요 주제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본고에서 수집한 논문 433편의 초록 코퍼스에 대해 먼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텍스트롬에서 단어 빈도 분석 및 매트릭스 분석(단어 간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한다. 이어 두 분석의 산출물을 활용해 의미연결망(semantic network)⁷⁾ 분석 도구인 유씨넷(UCINET)⁸⁾(Borgatti et al., 2002)에서 구조적

7) 의미연결망 분석은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연결망 분석을 활용하는 기법이다. 의미는 빈도뿐만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어들이 함께 등장하는 공출현(co-occurrence) 관계를 분석해 의미를 파악

등위성 분석(CONCOR, 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을 수행하여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서 논의된 주요 주제의 군집을 파악한다. 이 분석은 전체 연결망 구조상의 노드(단어) 중 상관관계가 높은 단어들을 군집으로 묶어준다. 단어 간 연결성을 중심으로 전체 의미연결망을 군집화하고 도식화하므로 각 군집에 대한 의미 파악뿐만 아니라 전체 연결망 구조 파악에도 용이한 분석 방법이다(남경덕 2022, p. 139). 본고의 분석 개요를 2.2절에서 논의한 드러커(2021, pp. 1-4)의 디지털 인문학 요소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디지털 인문학 논문 초록 분석 개요

| 자료 (디지털 데이터) | 처리 (분석 방법 및 도구) | 표현 (시각화) |
|---|---|--|
| KCI 인문학 분류 디지털 인문학 논문 433편의 초록 코퍼스 (81,205어절) | 형태소 분석, 데이터 정제 단어 빈도 분석 매트릭스 분석(TEXTOM) | 워드클라우드 공출현 매트릭스 |
| |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군집 분석(UCINET) | 의미연결망 덴드로그램 ⁹⁾ CONCOR |
| | 맥락 분석(AntConc) | 콘코던스 |

한다(김용학 등, 2024, pp. 304-305). 그중 구조적 등위성 분석 기법은 공출현하는 단어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 구조적 등위성(structural equivalence)을 가진 단어들을 군집화하는 분석 기법이다. 단어 A와 B가 직접 상호작용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단어와 맺는 관계의 유형이 동일할 경우 구조적으로 같은 위치(등위)를 가지므로 같은 군집에 속한다고 해석하는 방식이다(김용학 등, 2024, pp. 30-32).

- 8) 연결망 분석을 연구나 업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용이 필수적이다. 유씨넷은 그중 상대적으로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프로그램이다(곽기영, 2019, pp. ii-iii).
- 9) 노드 간 유사도나 거리를 기반으로 계층적 관계를 트리 구조로 보여주는 도형을 덴드로그램(dendrogram, 수형도)이라고 부른다(김용학 등, 2024, pp. 84-85).

그림 3
논문 초록 코퍼스의 상위 200개 핵심어 워드클라우드



우선 초록 코퍼스를 CSV 파일로 저장해 텍스트에서 형태소 분석을 실행한 후 명사를 추출하였고, ‘것’, ‘수’, ‘이’, ‘등’, ‘데’와 같은 한 글자 단어와 ‘본고’, ‘가지’ 등 주제와 연관이 없는 단어를 제거하는 데이터 정제 작업을 수행했다. 그런 다음 고빈도 핵심어 상위 200개 목록을 워드클라우드로 <그림 3>과 같이 시각화하였다.

워드클라우드의 중앙에는 가장 빈도가 높은 단어인 ‘디지털’(1,678회)이 자리하고 있다. 두 번째로 ‘연구’(1,472회)는 주제를 드러내는 단어라기보다 다른 단어와 연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높아 고빈도로 나타났다. 중앙부를 중심으로 분포한 빈도 200회 이상의 주요 주제어를 추려보면, ‘문화’(1,166회), ‘인문학’(709회), ‘콘텐츠’(530회), ‘교육’(521회), ‘한국’(340회), ‘인간’(317회), ‘사회’(301회), ‘텍스트’(223회), ‘지식’(222회), ‘고전’(215회), ‘관계’(204회) 등으로, 이 단어들을 통해 본고에서 수집한 국내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주요 관심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논문의 주제와 내용은 고빈도 목록에 추출된 핵심어들이 어떤 단어들과 어울려 얼마나 자주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공출현 행렬(co-occurrence matrix)을 통해 한층 가까이 살펴볼 수 있다(이창수, 2018, p. 237). <그림 4>는 텍스트에서 분석한 상위 80개 핵심어에 대한 공출현 행렬의 일부이다.

그림 4
논문 초록 코퍼스의 상위 80개 핵심어에 대한 공출현 매트릭스

| | 디지털 | 연구 | 문학 | 문화 | 인문학 | 콘텐츠 | 분석 | 교육 | 데이터 | 활용 | 기술 |
|-----|------|------|------|------|------|------|------|------|------|------|------|
| 디지털 | 0 | 7287 | 8059 | 2198 | 3806 | 1645 | 2187 | 2404 | 2119 | 2155 | 2646 |
| 연구 | 7287 | 0 | 5698 | 2907 | 2463 | 1631 | 2693 | 1722 | 2262 | 1897 | 1604 |
| 문학 | 8059 | 5698 | 0 | 2539 | 2302 | 986 | 1789 | 2563 | 1590 | 1517 | 1387 |
| 문화 | 2198 | 2907 | 2539 | 0 | 1978 | 5002 | 528 | 4766 | 279 | 632 | 1000 |
| 인문학 | 3806 | 2463 | 2302 | 1978 | 0 | 1258 | 617 | 1145 | 858 | 791 | 1395 |
| 콘텐츠 | 1645 | 1631 | 986 | 5002 | 1258 | 0 | 253 | 999 | 169 | 448 | 729 |
| 분석 | 2187 | 2693 | 1789 | 528 | 617 | 253 | 0 | 474 | 990 | 792 | 503 |
| 교육 | 2404 | 1722 | 2563 | 4766 | 1145 | 999 | 474 | 0 | 300 | 809 | 678 |
| 데이터 | 2119 | 2262 | 1590 | 279 | 858 | 169 | 990 | 300 | 0 | 848 | 467 |
| 활용 | 2155 | 1897 | 1517 | 632 | 791 | 448 | 792 | 809 | 848 | 0 | 514 |
| 기술 | 2646 | 1604 | 1387 | 1000 | 1395 | 729 | 503 | 678 | 467 | 514 | 0 |

매트릭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과 가장 자주 공출현하는 단어는 ‘문학’(8,059회), ‘연구’(7,287회), ‘인문학’(3,806회), ‘기술’(2,646회), ‘교육’(2,404회)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제 측면에서 디지털 인문학 자체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그 적용 분야로서 문학과 교육이 화두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디지털 인문학에서 ‘데이터’와 ‘기술’의 접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문화’와 ‘콘텐츠’의 높은 공출현 빈도(5,002회)는 2그램(두 단어 묶음)으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 ‘문화 콘텐츠’에서 알 수 있듯이(2.1절 참고) 이 주제가 국내 디지털 인문학의 주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¹⁰⁾ 아래 <그림 5>는 이 공출현 매트릭스를 유씨넷에서 의미연결망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에서 각 노드의 크기는 핵심어의 빈도를, 선의 굵기는 핵심어 간 연결(공출현) 정도를 나타낸다.

10) 텍스트에서 생성한 2그램 목록에 따르면, ‘디지털 문학’이 537회로 가장 높은 빈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문학 연구’(168회), ‘문학 교육’(76회)이 각각 3번째, 6번째로 빈도가 높다. 3그램(세 단어 묶음) 목록에서는 ‘디지털 문학 연구’(83회)와 ‘디지털 문학 교육’(33회)이 각각 1번째, 3번째로 빈도가 높다. ‘문화 콘텐츠’(238회)는 2그램 목록의 2번째에 올라와 있다.

<그림 6>에서 왼편의 덴드로그램을 살펴보면 총 5단계로 군집화가 이루어져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군집화가 4단계째 진행되면서 단절된 데이터가 나타나므로 군집화는 그 이전 단계인 3단계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해 형성된 8개의 핵심어 군집을 시각화한 것이 오른편의 그림이다. 군집별 핵심어를 정리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구조적 등위성 분석에 따른 핵심어 군집

| 군집 | 군집명 | 핵심어 ¹¹⁾ |
|----|-------------------|--|
| 1 | 개념 및 방법론 | 디지털, 연구, 문학, 인문학, 활용, 기술, 방법, 기능, 의미, 제시, 방식, 환경, 개념, 이해, 전통, 기존, 사례, 표현, 구체, 검토, 서사 |
| 2 | 한국의 지리/역사 | 정보, 한국, 분야, 관련, 중심, 공간, 역사, 방향, 성과, 시도, 지역 |
| 3 | 사회적 맥락과 변화 | 시대, 사회, 과정, 변화, 지식, 논의, 문제, 세계, 우리, 융합, 영역, 발전, 중요, 언어 |
| 4 | 디지털 미디어와 인간의 상호작용 | 인간, 매체, 미디어 |
| 5 | 데이터 및 분석 방법 | 분석, 데이터, 자료, 관계, 구축, 대상, 연구자, 결과, 사용, 내용, 확인, 네트워크, 진행, 시각 |
| 6 | 텍스트 분석 및 문헌 연구 | 텍스트, 고전, 작품, 소설 |
| 7 | 디지털 콘텐츠의 산업적 응용 | 문화, 콘텐츠, 학문, 산업 |
| 8 | 교육 및 제도적 발전 | 교육, 필요, 인문, 기반, 개발, 가치, 관점 |

<표 5>의 각 군집에 포함된 핵심어의 조합에서는 군집을 표상하는 주제와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각 군집은 기본적으로 연결중심성이 높은 핵심어를 위주로 명명하고, 의미가 모호한 경우 코퍼스 분석 도구인 엔트콘크

11) 군집별 핵심어는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순으로 배열했다. 연결중심성은 노드(단어) 간 연결 정도를 기반으로 각 노드의 연결망 내 영향력을 알려주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지표다(곽기영, 2019, p. 185).

(AntConc)(Anthony, 2024)의 콘코던스를 통해 핵심어가 사용된 맥락을 확인하였다. 군집별로 상술했다면, 군집 1의 핵심어들은 2장에서 다룬 디지털 인문학의 개념 논의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로 구성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연구 방식으로서 전통적인 인문학과 구별되는 디지털 인문학의 개념과 방법론이 주요 주제로 표현되고 있다.

군집 2의 경우 ‘한국’, ‘공간’, ‘역사’, ‘지역’ 정보가 중심이 된 만큼, 2.2절에서 기술한 디지털 인문학 분야 네 범주 중 공간 분석의 범주와 유사하다. 국내 맥락이므로 이 군집은 ‘한국의 지리/역사’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시대’, ‘사회’, ‘변화’, ‘발전’ 등의 핵심어에 비추어 디지털 인문학이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해 왔는지를 다루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맥락에 따른 변화는 3.2.1절에서 디지털 인문학 양적 추이의 배경으로 기술한 바 있다.

군집 4는 핵심어가 ‘미디어’, ‘매체’, ‘인간’의 세 개로 구성되어 일견 군집의 유의성이 약해 보인다. 하지만 콘코던스로 맥락을 확인한 결과, 미디어(매체) 속성과 생태계의 변화, 그에 따른 데이터 생성 및 소비 주체로서의 인간과 미디어 간 관계의 변화 등이 논의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군집은 디지털 기술이 인간과 미디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주제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군집 5는 핵심어에서 주제가 뚜렷하게 부각된다. ‘분석’, ‘데이터’, ‘자료’, ‘구축’, ‘네트워크’ 등의 핵심어를 통해 데이터 기반 연구 방법(네트워크 분석, 빅데이터 분석 등)에 관한 주제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군집 6 또한 핵심어에서 비교적 분명하게 주제를 추출할 수 있다. 디지털 인문학에서 고전 문헌, 문학 작품 등의 텍스트 분석을 다루는 연구 주제이다. 고빈도 핵심어 워드클라우드, 매트릭스, 엔그램 분석에서 확인했듯이(고전) 텍스트 연구는 디지털 인문학의 선호 주제임을 알 수 있다.

군집 7의 경우 2.1절에서 한국 디지털 인문학의 주요 특징으로 거론된 문화 콘텐츠와 관련한 주제이며, 디지털 인문학을 문화 콘텐츠 및 산업적 활용 측면에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군집 8에서는 ‘교육’, ‘기반’, ‘개발’, ‘가치’ 등의 핵심어를 통해 디지털 인문학의 교육 또는 디지털 인문학으로 인한 교육 내용과 방식의 변화, 제도 및 기관 주도의 프로그램 개발 등의 주제를 추론해 낼 수 있다.

이재연, 2018; 이종환, 2016; 정서현, 2023), 번역학 학술지에서는 최진실(2023)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디지털 인문학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로 번역 연구에 디지털 인문학적 연구 관점이나 방식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는 2.2절에서 제시한 구(2024), 보우커(2021) 및 돌마야(2024)의 번역학 내 디지털 인문학적 접근법 소개를 통해 알 수 있다. 다만 제목, 키워드, 초록 등에서 ‘디지털 인문학’을 그러한 연구의 표제로서 인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실제로 국내 (통)번역학계에서 디지털 인문학적 접근법은 근 몇 년간 점점 가시화하고 있다. 보우커(2021, pp. 38-42)가 제시한 <표 3>의 분류에 따라 몇몇 연구를 짚어보면, 우선 번역 기술과 관련해서는 현장 조사와 실험을 통해 학생들의 기계번역 활용 역량을 토대로 포스트에디팅 수업을 설계한 연구(이준호, 2021)와 신경망 기계번역의 젠더 문제를 고찰한 연구(지운주, 2021)를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디지털 기술과 분석을 논의에 적용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인문학적 고민을 다룬 디지털 인문학적 연구이다. 빅데이터 범주에서는 대규모 코퍼스나 서지정보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연구(유한내, 2020; 이창수, 2020; 정나영과 이지환, 2022), 디지털 공간 범주에서는 유튜브, 블로그 등 디지털 공간에서 생성된 데이터로 통역사 집단의 수용과 인식을 분석한 연구(권상미, 2020, 2023), 데이터 시각화 범주에서는 네트워크 분석과 시각화를 통한 번역가 관계망 연구(최은경, 2024) 등 보우커가 분류한 네 분야의 연구를 모두 찾아볼 수 있다.

번역학 내에서 디지털 인문학적 연구의 존재를 거시적으로 조망하려면 이창수(2018, 2019), 유한내(2020) 등 국내 번역학 연구 동향 분석도 참고해볼 수 있다. 이들 연구는 디지털 서지정보 수집과 분석 데이터 구축(키워드, 초록)부터 디지털 도구(R, Gephi, VOSviewer)를 활용한 분석까지 그 자체로도 디지털 인문학적 접근법으로 수행되었다. 국내 번역 연구의 흐름을 2000년 이후부터 2010년대 말까지의 학술지 논문 초록 코퍼스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으로 개관한 이창수(2018, p. 247; 2019, p. 117)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주요 변화 중 하나로 코퍼스 기반 경험적 연구의 확대를 들고 있다.¹²⁾

12) 두 연구는 해당 기간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는데, 기간의 분할은 두 연구 간에 차이가 있다.

이는 양적, 질적 측면은 논외로 하더라도 국내 번역학계에서 디지털 인문학의 자양분이 최소한 2010년대 초중반부터 축적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¹³⁾ 또한 2010년대 후반부에는 기계번역과 번역 기술 관련 키워드가 새롭게 부상해 3.2.1절에 기술한 알파고 이후 딥러닝, 인공지능과 관련한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변화에 번역학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현재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 디지털 인문학 연구 분야 중 국내 번역학 연구에서 찾아보기 힘든 영역도 존재한다. 2.2절의 말미에도 언급했듯이 돌아야(2024, p. 2)는 번역학에서 뒤쳐진 분야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관련 연구 방법을 개별 장에서 상세히 기술한다. 요컨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번역서 내용의 지리적 분석 및 번역 출판사 간 연결망 시각화 연구, 지리정보 추출, 감성 분석, 이미지 분석 등을 번역학에서 적용 가능한 디지털 인문학 연구 분야로 소개하고 있다. 추가로 본고에서 분석한 <표 5>의 국내 디지털 인문학 연구 분야에 대비해서도 번역학 내 디지털 인문학 연구 분야의 확대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인문학의 ‘개념과 방법론’, ‘교육 및 제도적 발전’에 관한 학술 담론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내 디지털 인문학적 번역 연구에서 관찰되는 또 한 가지 현상은 관련 연구가 소수의 연구자에게 집중되어 있거나, 연구 동향, 코퍼스, 기계번역 등 특정 주제에 쏠려 있다는 점이다. 연구 동향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인문학 연구보다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 대한 연구가 더 많다는 자조적 평가(정서현, 2023, p. 129)처럼 번역학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이 점에서 본고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냉정한 성찰이 필요한 지점이다.

디지털 인문학이 자료의 디지털화와 분석 처리를 넘어 “지식과 연구체계 변화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박광현, 2020, p. 131)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번역학에서는 디지털 인문학이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거나 수용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13) 이와 같은 결과는 2015-2019년 논문의 상위 20개 키워드 네트워크를 분석한 유한내에서도 확인된다(2020, pp. 150-153).

4.2 디지털 인문학적 번역 연구를 위한 함의

본고는 2장의 디지털 인문학 개념과 3장의 국내 디지털 인문학 연구 현황, 그리고 본 장에 진술한 국내 번역학 내 디지털 인문학적 연구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향후 국내 번역학에서 디지털 인문학적 접근의 시의적 확장과 다변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번역학 내 공백이 있는 디지털 인문학 분야에 대한 관심과 번역학 연계 아이디어 발굴을 복돋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돌마야(2024, p. 2)가 제시한 지리 정보를 활용한 작품 분석과 관계망 분석, 감성 분석 등은 문학 작품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번역학 연구에서 충분히 새로운 관점으로 통찰할 수 있는 분야이다. 또한 국내 디지털 인문학 연구 동향에서 주요 주제로 확인된 디지털 인문학 개념, 방법론, 교육 및 제도와 관련한 연구도 개척하고 보완할 분야이다.

둘째, 번역 서지정보나 번역가 정보 등 기존에 구축된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한편,¹⁴⁾ 아직 관심 밖에 묻혀 있는 번역 관련 아날로그 데이터를 발굴하고 디지털화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고전문학, 근대문학 등의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전 텍스트 디지털 인문학 연구를 참고하여 미처 조명받지 못한 고전 텍스트 번역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디지털 인문학적 연구 과제로 발굴할 수 있다(c.f. 이재연, 2018, p. 157-158).

셋째, 디지털 데이터 구축과 편찬에는 상당한 인력, 시간,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번역학에서 비중이 큰 텍스트 분석, 예컨대 문학번역 분석의 경우 디지털 번역 데이터를 확보하기 힘든 데다, 필연적으로 원문 텍스트의 존재를 전제하기에 데이터 확보 및 변환에 이중, 삼중의 시간과 노력이 소모된다. 따라서 디지털 인문학적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등의 제도적 지원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¹⁵⁾

14) 예를 들어 최은경(2024)은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문학 번역 서지정보>를 활용했다.

15) 서구와 동아시아 각국이 정부와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디지털 인문학의 제도적 육성을 위해 대규모 아카이브 구축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개설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전개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디지털 인문학을 위한 전문 센터가 적으며, 전문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김일환과 이도길, 2016).

한국연구재단의 과거 인문사회 학술 분야의 토대사업 또는 개인 과제의 주제를 참고하면 아이디어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기초학문자료센터, n.d.).

넷째, 인문학 연구자들에게 디지털 인문학의 기술적 측면은 생소하면서도 상당한 지적 부담으로 다가온다(박광현, 2020, p. 130). 이는 번역학 연구자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번역학 내부의 관련 연구 저변 확대가 더디고 소수의 특정 저자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디지털 인문학의 개념에서도 강조된 인문학자와 디지털 종사자 간의 협업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있다고 본다(c.f. 정은경, 2021, pp. 401-406). 최근 몇 년간 실시된 국내 번역학 관련 학회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특강 프로그램들은 이 같은 요구를 일부 충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¹⁶⁾ 또한 학부, 대학원 등 교육기관에서도 디지털 지형 변화에 발맞춘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기민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¹⁷⁾ 현재 번역학 내 디지털 인문학적 연구에서 산학 연계 사례나 이공계 연구자와의 협업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c.f. 신혜정과 문성민, 2022). 그러나 협업의 성패는 참가자들이 최소한의 상호 이해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달린 만큼(박광현, 2020, p. 150), 전술한 대로 번역학 내부에서 교육을 통한 유기적 역량 강화에 힘쓰는 한편, 협업 대상자의 번역학 생태계 편입(학회 참여 등)을 독려하고 번역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디지털 영문학(김용수, 2018), 디지털 고전학(유인태, 2022), 디지털 역사학(윤혜민, 2024), 디지털 한문학(유인태, 2023) 등과 같이 디지털 인문학의 연결망을 이루는 하위 연결망으로서 ‘디지털 번역학’의 존재와 위상을 키울 필요가 있다. 디지털 인문학이 개념적으로 인문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까지 표상되는 만큼(박광현, 2020, p. 150), 그 안에서 번역학의 존재를 알릴 필요가 있다. 일부 도전과 개척이 필요한 영역은 분명히 있지만, 번

16) 예를 들어 한국번역학회(KATS) 산학협력위원회는 ‘번역, 인간과 기계의 협업’ 시리즈의 일환으로 2024년 9월 21일 ‘DeepL 교육’을 실시하는 등 꾸준히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한국번역학회, n.d.).

17)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부는 2024년 여름부터 영어영문학부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연구자에게 개방된 디지털 인문학 특강과 <디지털 인문학 랩>을 운영하고 있다(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부, n.d.).

역학 내부에서부터 인식의 전환을 이루고 현재 실행되고 있는 디지털 인문학적 번역 연구를 디지털 인문학 연구로 인식하고 명명할 수 있다면 ‘디지털 번역학’으로의 이행 또는 확장은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디지털 인문학으로서의 번역학 증진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디지털 인문학의 개념과 정의를 정리하고, 국내 인문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흐름을 검토하였으며, 디지털 인문학을 표방한 연구 논문의 초록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과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해 주요 연구 주제를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번역학 내 디지털 인문학적 연구의 가능성과 한계를 조명하였다. 번역학 연구에서는 아직 디지털 인문학 연구 패러다임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지만, 코퍼스 기반 연구나 번역 기술과 같은 디지털 인문학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향후 협업과 교육 증대를 통해 디지털 인문학의 확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고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인문학의 개념을 정리하고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번역 연구자들이 디지털 인문학적 연구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국내 인문학 연구에서 디지털 인문학이 수행된 현황과 연구 분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번역학 내에서 적용 가능한 연구 주제와 방법론을 탐색하였다. 셋째, 번역 연구에서 디지털 인문학적 접근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넷째, 본 연구자는 본고의 논의 전반을 디지털 인문학적 분석으로 전개하였다. 공개된 디지털 데이터를 프로그래밍이 필요 없고 진입장벽이 낮은 디지털 분석 도구로 수집, 분석하는 한편, 질적 분석을 병행하여 인문학적 탐구의 속성을 유지함으로써 디지털 인문학의 실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번역학을 위한 디지털 인문학적 접근, 또는 ‘디지털 번역학’을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디지털 인문학의 개념적 이해와 더불어 데이터의 구조와 속성, 분석 기법의 의미와 원리 등에 대한 기본적인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디지털 사유’(한호현과 서재현, 2023, pp. 4-7)를 할 수 있

어야 한다. 디지털 사유는 인간의 사상과 지식, 언어와 문화의 소통을 연구해 온 번역학의 인문학적 근간을 저버려야 한다는 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번역학은 역사적으로 시의적, 사회적 화두를 반영하는 융합적 인문학으로서의 본성을 발산해 왔기에(이향 등, 2023, pp. 285-287), 디지털 사유는 이러한 본성을 새로이 일깨우는 일이며 번역학 연구자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질 시대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어떻게 실천할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디지털 인문학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개방적인 자세일 수도 있고, 미처 도달하지 못했던 학문적 발견을 위한 구체적인 디지털 분석일 수도 있다.

디지털 인문학 진입에 주저하는 번역 연구자가 있다면 본고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곽기영. (2019). 소설 네트워크 분석. 도서출판 청람.
- 교육부. (2021). 제2차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안). 교육부.
- 권상미. (2020). 유튜브 댓글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한 봉준호의 통역사 샤론 최(Sharon Choi)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연구. *통역과 번역*, 22(2), 1-28.
- 권상미. (2023). 온라인에서의 동시 통역사 인식 연구 — 유튜브와 네이버 지식인 데이터의 내용 및 키워드 분석. *통번역학연구*, 27(1), 1-24.
- 권영민. (2001). 디지털 시대 인문학의 방향. *국어국문학*, 129, 5-9.
- 기초학문자료센터. (n.d.). 토대연구DB. 한국연구재단. 2025. 2. 1. 검색, https://www.krm.or.kr/baseData/bird_index_totalSearch.jsp
- 김민형, 임영상. (2016).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을 다시 생각한다: 인문콘텐츠에서 지식콘텐츠까지. *인문콘텐츠*, 41, 9-29.
- 김바로. (2014). 해외 디지털인문학 동향. *인문콘텐츠*, 33, 229-254.
- 김보성. (2024). 20세기에 진단한 한국 한문학의 실태 — 일제강점기 기고 글을 중심으로. *漢文學報*, 50, 5-40.
- 김용수. (2017). 한국의 디지털인문학: 위기, 희망, 현실. *비평과이론*, 22(2),

41-62.

- 김용수. (2018). 영미문학과 디지털인문학: 미국 디지털 영문학 연구 동향. *비평과이론*, 23(3), 35-58.
- 김용수. (2021). 사회 연결망 분석과 문학 연구: 영미문학과 한국문학을 중심으로. *비평과이론*, 26(2), 55-76.
- 김용학, 김영진, 이병규. (2024). 사회 연결망 분석. 박영사.
- 김일환, 이도길. (2016). 빅 데이터 시대의 디지털 인문학. *민족문화연구*, 71, 355-381.
- 김지선, 유인태. (2022). 지식의 공유와 표현 그리고 디지털 인문학: 해외 디지털 인문학 연구 사례 검토. *인문논총*, 79(2), 391-427.
- 김현. (2013). 디지털 인문학 — 인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상생 구도에 관한 구상. *인문콘텐츠*, 29, 9-26.
- 김현, 임영상, 김바로. (2016). 디지털 인문학 입문. HUEBOOKs.
- 남경덕. (2022). 레거시미디어와 청와대 국민청원제도의 공중의제 대응방식 및 실효성에 관한 연구: 의미연결망분석 및 연결망군집분석을 통해.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67, 115-157.
- 더아이엠씨. (2024). 텍스톰 [컴퓨터 소프트웨어]. <https://www.textom.co.kr>
- 류인태. (2020).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이다. *인문논총*, 77(3), 365-407.
- 박경우. (2022). 인문학 연구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현황 및 적용 방향 — 디지털 인문학 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200, 137-179.
- 박광현. (2020). 디지털 인문학 프로젝트와 전산언어학. *인문과학연구논총*, 41(2), 129-152.
- 서경숙. (2017). 문학수업을 위한 디지털 인문학 교수법의 필요성과 실제 — 하이퍼텍스트 쓰기를 중심으로. *현대영어영문학*, 61(4), 167-186.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편). (2024). 디지털 시대, 인문학의 미래를 말하다. 사회평론아카데미.
- 송인재. (2017). 진화하는 디지털인문학. 개념과 소통, 20, 323-331.
- 신혜정, 문성민. (2022).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번역가 문체 분석. *T&I Review*, 12(1), 97-120.
- 유인태. (2022). 디지털 고전학에 관한 시론(試論). *韓國古典研究*, 57, 35-60.

- 유인태. (2023). 디지털 한문학의 가능성과 그 실현에 관한 모색. *동아한학연구*, 17, 9-42.
- 유한내. (2020).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국내외 통번역 연구 동향 비교. *통역과 번역*, 22(1), 135-158.
- 육현승, 조병철. (2013). 빅데이터 시대에 인문학의 역할 변화에 대하여. *독어독문학*, 54(2), 119-147.
- 윤혜민. (2024). 한국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 디지털 역사학과 공공역사의 적용과 전망. *통일인문학*, 100, 117-158.
- 이석재. (2024). ‘신한국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편), 디지털 시대, 인문학의 미래를 말하다 (pp. 16-27). 사회평론아카데미.*
- 이승은. (2023). 고전문학 관련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현황과 미래. *고전과 해석*, 39, 89-126.
- 이은수. (2024). 디지털 시대 다시 인문학을 정의하라.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편), 디지털 시대, 인문학의 미래를 말하다 (pp. 172-182). 사회평론아카데미.*
- 이재연. (2018).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에서 디지털 인문학 시대로 — 한국문학에서 본 디지털 인문학 연구. *역사학보*, 240, 157-190.
- 이종환. (2016). 인문학의 미래와 디지털 인문학. *안과밖*, 41, 87-114.
- 이준호. (2021). 한영 포스트에디팅,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가?: 포스트에디팅 수업 설계를 위한 예비 연구. *번역학연구*, 22(1), 171-198.
- 이창수. (2018). 국내 번역연구의 어제와 오늘: 텍스트 마이닝 분석 — 『번역학연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9(2), 234-252.
- 이창수. (2019). 2010년대 국내 통번역학 연구 동향에 대한 키워드 분석. *번역학연구*, 20(5), 107-129.
- 이창수. (2020). 번역문체 분석 방법으로서의 주성분분석(PCA). *통역과 번역*, 22(3), 117-140.
- 이향, 남원준, 이형진. (2023). 대전환 시대, 번역학의 지속가능성. *번역학연구*, 24(4), 267-298.
-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부. (n.d.). 2024 여름방학 디지털 인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부. 2025. 1. 30. 검색, <https://m.site.naver.com/1C6>

20

- 정나영, 이지환. (2022). 국내 뉴스 번역 연구 경향성에 관한 메타분석. *인문사회*21, 13(4), 1505-1518.
- 정서현. (2023). 문학 연구의 고유성과 디지털인문학의 가능성: 연구 동향 분석 및 겸허한 제안. *근대영미소설*, 30(2), 129-157.
- 정유경. (2020). 디지털 인문학 분야의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7(2), 311-331.
- 정은경. (2021). 디지털 인문학 연구 동향 분석 — Digital Humanities 학술대회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1), 393-413.
- 조지형. (2000). 정보시대와 ‘열린’ 인문학. *미국학논집*, 32, 5-37.
- 지윤주. (2021). 신경망 기계번역 내 젠더 문제 고찰 연구 — 네이버 파파고와 구글 번역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3(1), 269-294.
- 채승병, 안신현, 전상인. (2012). 빅데이터: 산업 지각변동의 진원. *삼성경제연구소*.
- 최은경. (2024). 사회 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번역가 네트워크 연구: 한국문학 영어 번역 공역자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5(3), 177-197.
- 최진실. (2023). 디지털 인문학 기반 개화기 번역가 계열의 탈식민화 관점 연구: 일본에 대한 담화분석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21(1), 197-222.
- 한국번역학회. (n.d.). DeepL 교육 공지. *한국번역학회*. 2025. 1. 30. 검색, <https://m.site.naver.com/1C6fK>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n.d.). 디지털 인문학. *한국연구재단*. 2025. 1. 15. 검색, <https://www.kci.go.kr>
- 한동현. (2013). 문화콘텐츠학의 새로운 포지셔닝: 디지털 인문학. *한국문예비평연구*, 40, 299-325.
- 한호현, 서재현. (2023). 디지털인문학: 담론과 강의. *진한엠앤비*.
- 홍정욱, 김기덕. (2014). ‘2014 세계 디지털인문학’ 학술대회 및 한국의 디지털인문학. *인문콘텐츠*, 34, 53-75.
- Anthony, L. (2024). *AntConc* (Version 4.3.1) [Computer software]. Waseda University. <https://www.laurenceanthony.net/software/AntConc>

- Borgatti, S. P., Everett, M.G., & Freeman, L.C. (2002). *UCINET for Windows: Software for social network analysis* [Computer software]. Analytic Technologies.
- Bowker, L. (2021). Digital humanities and translation studies. In Y. Gambier & L. v. Doorslaer (Eds.),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Vol. 5)* (pp. 37-44). John Benjamins.
- Burdick, A., Drucker, J., Lunenfeld, P., Presner, T., & Schnapp, J. (2012). *Digital humanities*. Cambridge.
- Dolmaza, M. J. (2024). *Digital research methods for translation studies*. Routledge.
- Drucker, J. (2021). *The digital humanities coursebook: An introduction to digital methods for research and scholarship*. Routledge.
- Gu, C. (2024). One-third of a century on: The state of the art, pitfalls, and the way ahead relating to digital humanities approaches to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Digital Scholarship in the Humanities*, 39(1), 154-161.
- Heppler, J. (n.d.) What is digital humanities. Retrieved February 1, 2025, from <https://whatisdigitalhumanities.com>
- Hockey, S. (2004). The history of humanities computing. In S. Schreibman, R. Siemens & J. Unsworth (Eds.), *A companion to digital humanities* (pp. 3-19). Blackwell Publishing.
- Kamaluddin, M. I., Rasyid, M. W. K., Abqoriyyah, F. H., & Saehu, A. (2024). Accuracy analysis of DeepL: Breakthroughs in machine translation technology. *Journal of English Education Forum (JEEF)*, 4(2), 122-126.
- Klein, L. F., & Gold, M. K. (2016). Digital humanities: The expanded field. In M. K. Gold & L. F. Klein (Eds.), *Debates in the digital humanities* (pp. ix-xv).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chreibman, S., Siemens, R., & Unsworth, J. (Eds.). (2004). *A companion to digital humanities*. Blackwell Publishing.
- St. André, J. (2018). Introduction: Translation studies and the digital.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2(1), 1-4.

Tanasescu, R. (2021). Complexity and the place of translation in digital humanities. In K. Marais & R. Meylaerts (Eds.), *Exploring the implications of complexity thinking for translation studies* (pp. 30-72). Routledge.

The jamovi project. (2024). *Jamovi* (Version 2.6) [Computer software]. <https://www.jamovi.org/cloud.html>

Wakabayashi, J. (2019). Digital approaches to translation history. *Translation & Interpreting*, 11(2), 132-145.

Understanding digital humanities for translation studies: Concepts, research trends, and implications

Heekyung Choi (trans.hufs@gmail.com)

Departmen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Communi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how digital humanities (DH) can be conceptualized and applied in translation studies (TS). While DH has gained increasing attention across various disciplines, its presence in TS remains relatively limited. To bridge this gap, this study examines the definitions and conceptual framework of DH, analyzes its research trends in South Korea, and investigates its relevance to translation studies. By employing text mining techniques, including keyword frequency analysis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this research identifies key thematic clusters within Korean DH studies and assesses how translation-related research aligns with these trends. The findings suggest that while DH methodologies, such as corpus-based studies, text mining, and network analysis, have been utilized in TS, they have not been explicitly framed within the DH paradigm. Additionally, this study highlights potential areas for expanding DH-based translation research, including the application of geospatial analysis, sentiment analysis, digital archiving, and education. The study underscores the need for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enhanced digital literacy among translation scholars, and the establishment of “digital translation studies” as a recognized subfield within DH. By offering an overview of DH’s intersection with T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methodological diversification and expansion of translation research.

Keywords: Digital humanities; research trends; corpus-based research; text min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키워드: 디지털 인문학, 연구 동향, 코퍼스 기반 연구, 텍스트 마이닝, 의미연결망 분석

최희경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과 부교수

trans.hufs@gmail.com

논문 투고일: 2025년 2월 15일

1차 심사 완료: 2025년 3월 2일

2차 심사 완료: 2025년 3월 8일

게재 확정: 2025년 3월 15일